

려운 ‘악한영웅’으로 알게 된 것

넷플릭스 ‘악한영웅 Class2’ 박후민 역
새로 합류 주인공 연시은과 우정 쌓아
힘 센 캐릭터 연기 위해 10kg 증량도



“배우 인생의 전환점 같아요.” 배우 려운(27)에게 넷플릭스 시리즈 ‘악한영웅 Class2’가 자신에게 어떻게 남을지에 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신인 때는 빨리 뜨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연기가 진심으로 좋아진 뒤부터 이 일을 꾸준히 계속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은 더 큰 욕심 없이 그냥 계속 이 일을 하고 싶다. ‘악한영웅’은 연기에 진심을 갖게 해준 작품이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에서 려운을 만났다. 그는 ‘악한영웅 Class2’에서 ‘박후민’을 맡았다. 박후민은 시즌2에서 새롭게 등장한 인물. 주인공 연시은(박지훈)이 은장고등학교로 전학 가서 만난 친구다. 박후민은 은장고를 든든하게 지키는 한마디로 함께(힘)이 있는 캐릭터다. 그러면서도 성격이 호쾌해 친구 누구와도 두루 가깝게 지낸다. 실제로 I인 려운은 말하자면 작품 안에서 E가 됐어 했다.

“솔직히 초반에는 힘들었는데 점차 적응했다. 텐션 올리려고 시작 전부터 뛰면서 톤을 높이려고 노력했다. 원래 완전 내향인이었는데 조금 외향적으로 바뀐 것 같아서 좋

았다. 그래서인지 드라마 촬영 끝나고도 박후민 톤을 버리기 힘들었다. ‘악한영웅’ 촬영 끝나고 거의 바로 드라마 ‘나미브’를 찍었는데 한 번씩 박후민 톤이 튀어나와서 다시 촬영했다.”

박후민의 첫 등장은 강렬하다. 빨강계 물 들인 머리에 패딩을 입고 반바지에 슬리퍼를 착용했다. 마치 ‘슬램덩크’ 강백호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려운은 “슬램덩크 강백호를 참고한 게 맞다”며 “반바지나 쪼리를 신고 싶다고 제가 아이디어 냈다. 박후민 인생은 순탄치 않다. 그가 우울한 감정 억누르려고 호탕한 모습을 보이고, 친구를 책임지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박후민이 범상치 않다는 걸 첫 등장부터 표현하고 싶었다”고 했다.

박후민은 주먹 한 방으로 싸움을 끝내는 캐릭터. 려운은 이런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증량했다. 극 중 려운은 어느 때보다 듬직해보인다. “지금 같은 체형에서 헬멧을 손으로 부수면 이질감이 들 것 같아서 시청자를 이해시키기 위해 증량했다. 두 달 간 10kg 넘게 찘췄다.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다. 이후 촬영 중 살이 너무 찜

서 후반부엔 다시 감량하기도 했다.”

박후민은 친구들에게 상처 입어 닫힌 연시은의 마음을 다시 연다. 연시은은 박후민이 나쁜 길로 빠졌을 때 친구들과 함께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는다. “지훈이는 현장에서 항상 웃음을 줬다. 센스도 좋고 서로 농담하면서 친해졌다. 그리고 지훈이는 상대에게 주는 강렬한 에너지가 있다. 눈만 봐도 명확히 전달해 준다. 그래서 그런 눈만 봐도 몰입하기 쉬웠다. 한 번은 눈물이 나야 하는 장면에 눈물이 안 났는데 그때도 괜찮다면서 기다려줘서 고맙웠다.”

박후민 입장에서 든든하게 힘이 되어준 연시은에 대해 드라마 제목처럼 ‘악한영웅’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려운은 “엄청 강한 영웅”이라며 했다. 이어 “시은이는 너무 강력한 존재다. 도도하고 시크하고 남 신경 안 쓰려고 하지만 준태도 구해주고 제가 잘못된 길 갔을 때도 도와준다. 그래서 영웅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Class2’에선 박후민과 나백진(배나라)의 관계성도 흥미롭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절친한 친구였지만 커서는 각자 다른 길을 간다. 나백진은 유일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박후민을 일진 연합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박후민을 계속 자극하고 주변 사람을 건드린다. 한 마디로 두 사람은 애증 관계다.

“박후민은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깨닫기 전에 나백진을 마냥 미워만 했다. 처음에는 ‘내 친구 왜 자꾸 건드려’ ‘너 갈 길 가. 나는 내 갈 길 갈테니까’라면서 미워하기만 했다. 이후 시은이를 통해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깨닫고는 애증처럼 아픈 감정을 보여주려고 했다.”

‘Class2’는 넷플릭스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1~27일 시청 순위에서 공개 사흘만에 조회수 610만회, 시청 시간 3490만 시간을 기록해 비영어 TV쇼 부문 1위에 올랐다.

려운은 “작품 하면서 주변에서 연락 많이 오는 게 처음”이라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소셜미디어 팔로워도 30만명 정도가 늘었다. 확실히 외국인 분이 많더라. 영어를 잘 못해서 댓글을 번역해서 봤다”고 했다.

려운은 이번 작품을 통해 각종 액션 장면은 물론이고 절절한 감정 연기까지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지금까지 우정에 대해 이렇게 깊게 파고든 적이 없었다. 우정으로 어떻게까지 깊은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드라마 찍으면서 알게 됐다. 작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새 느끼는 건 ‘내 주변 친구들을 정말 잘 챙겨야겠다. 진심으로 대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제니, ‘라이크 제니’ MV 1억뷰 넘어

올해 발표 K팝 최초 달성

걸그룹 ‘블랙핑크’ 제니의 신곡 ‘라이크 제니’(like JENNIE)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조회수 1억회를 돌파했다고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가 10일 밝혔다.

‘라이크 제니’는 제니의 첫 솔로 정규 앨범 ‘루비’(Ruby)의 타이틀곡으로, 뮤직비디오는 전날 오전 3시 50분 1억회를 넘었다.

올해 발표된 K팝 아티스트 뮤직비디오 중 최초로 1억뷰를 기록한 것은 이 노래가 최초다. 앞서 제니의 ‘솔로’(SOLO) 뮤직비디오가 조회수 10억회를, ‘만트라’(Mantra)는 1억뷰를

달성한 바 있다.

‘라이크 제니’는 제니가 작사·작곡에 참여한 곡으로, 자신의 개성과 색을 잃지 않고 당당히 빛나는 모습을 표현했다.

이 노래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통산 3주 진입했고,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누적 스트리밍 2억회를 달성했다.

뮤직비디오는 제니가 가짜 이미지와 거짓된 이야기들에 맞서 싸우고, 결국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담겼다. 제니가 카피바라로 변신하는 마지막 장면은 거짓을 벗어 던지고, 순수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백종원, 논란 끝에 ‘방송활동 중단’ 왜?

올해 1월 백해 선물세트 가격 논란 시발점으로 구설 계속



외식 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22대 총선을 앞둔 불과 1여년 전까지만 해도 긍정 이미지를 바탕으로 정당을 불문한 러브콜 1순위였다.

2016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제안을 받은 뒤부터 “제 아들을 걸고 정치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고 부인해왔으나 굶직한 선거 때마다 그의 이름은 빠지지 않고 오르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더본코리아가 유가증권 시장 상장 이후 백 대표가 처한 상황이 급변했다. 국민 호감으로 통하던 그가 실 새 없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출시한 백해 선물세트 가격 논란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고난의 신평탄이었다. 이후 더본코리아 혹은 자회사 관련 문제들이 연이어 터졌다. 지금까지 나온 논란을 일주 따져도 10여개가 된다.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 가스를 옆에 두고 요리해 받은 과태료 처분, 백다방 플라스틱 용기 전자레인지 사용 안전성 시비, 농약 통 소스 살포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닭죽과 고무다방 원산지 허위 표기 등이 대표적 논란이다.

또 더본코리아 임원의 부적절한 술자리 면접과 언행 의혹, 가맹점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 미래사업전략으로 제시한 지역개발사업 등으로도 구설에 올랐다.

처음엔 예상할 수 없는 논란이 봇물처럼 터지니가 일부에서 악가(악을한 비판)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더본코리아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노출되면서 더는 터졌다. 반응이 많아지고 있다. 최고 6천4500원을 찍었던 주가는 지난 9일 종가 기준 2만6150원을 기록했다.

백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최근 제61회 ‘백상예술대상 with 구췌’에서 방송 부문 대상을 받았지만 그가 마냥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다.

결국 백 대표는 지난 6일 더본코리아 제품 품질·가격 등 그간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본업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모든 문제는 제게 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조직을 개선하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2025년을 더본코리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제2의 창업 원년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 ‘슈가보이’ 백종원, 어떻게 스타 방송인이 됐나

백 대표는 방송을 통해 친근한 멘토 이미지를 다졌다. 이런 모습이 더본코리아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백 대표가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한 건 2004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음식이 좋아 외식업에 뛰어들 그는 당시 매운닭발을 내세운 ‘한신’, 대패삼겹살로 히트를 친 ‘우삼겹’으로 명성을 얻은 ‘분개’ 등 손대는 식당마다 흥행에 성공시켰다. 그렇게 요식업체 마다의 소으로 퍼올랐고, 창업·운영 경험을 담은 책 ‘돈버는 식당비법’은 있다’를 출간하면서 신문 인터뷰 등에 올랐다.

이후 요식업계 강자로 입지를 굳히던 백 대표는 2010년 SBS TV 요리 예능물 ‘진짜 한국의 맛’을 통해 방송계에 정식 입문한다. 2014년 올리브 ‘한식대첩’ 심사위원으로 출연하며 음식 전문가 면모를 드러냈다.

본격적으로 대중적 인기를 누리게 된 계기는 2015년 MBC TV 예능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마리텔)이었다.

요즘 주류가 된 인터넷 방송을 10년 전에 결합시킨 앞서가는 예능물이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백 대표는 따라하기 쉬운 요리 비결을 공유하며 단숨에 인기 방송인이 됐다. 설탕을 다소 과하게 사용해 ‘슈가보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오히려 대중에게 다가가는 연결고리가 됐다. 그의 레시피가 점차 온라인에 퍼지면서 ‘백주부’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영향력을 점차 넓혀나가면서, 방송계의 러브

콜이 이어졌다. tvN ‘집밥 백선생’ 시리즈, SBS TV ‘백종원의 3대 천왕’ 등 다양한 요리 예능물에 출연했다. 또 다른 기점은 SBS TV ‘백종원의 골목식당’(2018~2021)이다. 식당 자영업자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책을 알려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백 대표는 멘토로 등극했다.

이후 tvN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티빙 ‘백종원의 사계’, tvN ‘백패커’ 시리즈, tvN ‘장사천재 백사장’ 시리즈, ENA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등 인기 예능에 대거 출연하며 스타 방송인으로 자리잡고 굳혔다.

여기에 방송가뿐 아니라 유통가, 외식계에도 파급력을 끼친 ‘흑백요리사’에선 ‘미슐랭 3스타’ 안성재 셰프와 단 둘이 심사위원을 맡아 심화 전문성까지 공인 받으며 거물급 인사가 됐다.

◆ 본업 연이은 논란에 부업 방송 출연 문제 시

하지만 방송은 사실 백 대표의 부업. 구멍이 계속 뚫린 본업이 결국 ‘방송인 백종원’의 발목을 잡게 됐다. 한 전직 PD는 백 대표가 방송에서 자기 사람들을 내세우는 감정을 했다는 주장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백 대표가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지만 그가 출연한 여러 개의 예능물이 방송을 앞두고 있다. 우선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가 하반기 공개된다. 해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을 담은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3는 최근 프랑스에서 촬영 중인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개됐는데 tvN 측은 편성은 미정이라고 했다.

지난달 MBC TV에서 방송할 예정이었던 기대작 ‘남국의 셰프’ 첫 방송일은 연기됐다. 백 대표가 남국 월동대 대원들을 위해 음식을 대접하는 과정을 그린 예능물이다.

백종원의 일부 팬들은 최근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관련 일부 논란에 대해 “정치인인 관대하고 방송인에게만 엄격한 우리사회 문화 때문”이라고 토로하고 나섰다.

법적 책임이 있다면 묻는 게 당연하지만 백 대표가 그 동안 해온 노력과 진심까지 지워져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 먹거리와 요리를 대중문화로 끌어올린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사실 민간 기업을 운영하는 백 대표의 방송 출연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다. 하지만 케이블 뿐 아니라 지상파 예능물을 통해 공적으로 선한 이미지를 구축한 백 대표가 구설에 올른 것은 처음부터 차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 활동이 활발한 터라, 본업인 회사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성실도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미지 구축만으로 유가증권시장에 나온 회사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하기는 힘들다. 특히 내실을 다지지 않은 채 외연만 확장해 겉모습만 치장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품이 많이 드는 방송 활동 대신 품질, 식품 안전, 축제 현장 위생 등에 신경을 썼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지 않았을 것이고,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덜 갔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덜 신경 쓰고 방치했던 일들이 상장 이후 감시가 더 심해지면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에선 더본코리아 당치가 커지면서 사실상 백 대표의 1인 체제 구조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도 한다. 더본코리아는 조직문화 혁신, 임직원 책임 강화도 쇄신의 주요 키워드로 내세웠다. 또 50억원 규모의 가맹점 상생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백 대표의 쇄신 약속에도 당분간 그는 계속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백종원이라는 브랜드는 더본코리아보다 앞선다. 그의 언행 하나하나가 회사 운영에 직결된다. 그건 궁부형 측면을 동시에 갖는데, 최근 더본코리아가 유가증권시장에 나오면서 감시가 심해졌고 이전엔 그냥 넘겼던 문제들을 매의 눈으로 보는 이들이 늘어 나면서 부정적인 측면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짚었다.

“요식업의 부흥과 자영업자, 지역을 돕고자 하는 백종원의 선의까지 의심하지는 않지만 이전 그의 언행, 방송 출연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 경계를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유튜브 채널 이더라도 제품이나 회사 홍보의 여지가 있는 건 최대한 끊고, 상장 기업의 오프라인 책임과 윤리 경영에 더 시간과 공을 들여야 최근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혼성그룹 ‘몰라’ 멤버 겸 방송인 이상민이 10세 연하 아내와 재혼한 뒷얘기를 털어냈다. 이상민은 아내와 결혼식 없이 지난달 30일 혼인

신고를 했다.

이상민은 10일 방송된 JTBC 토크 예능물 ‘아는 형님’에서 아내에 대해 “작년 7, 8월에 처음 알게 됐고 첫 눈에 반했다. 너무 예뻐서 ‘연애인 하셔야 될 분인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아내는 일반 직장인이라며 올해 1월부터 사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민은 “당시 ‘가족도 없는데 꾸준히 일을 하면서 내가 견뎌야 할 목적과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에 번아웃이 찾아왔다. 그때 이전에 주

고 받은 명함을 보고 연락을 했다”며 만나게 된 계기를 부연했다.

결혼식을 하지 않기로 한 건 아내가 원해서였다. 이상민은 “연휴 기간 동안 아내의 가족들을 만났다. (결혼 허락을 위해) 장인 어른, 장모님을 찾아 뵈을 때 생각보다 나를 너무 좋아하셨다”고 웃었다.

아내의 조카들은 자신들을 보자마자 “왜 아저씨는 아는 형님에서 한마디도 안해요?”라고 물었는데 “참는 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